



삼성전자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첫 공개한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사진)는 메탈과 글래스가 조화된 세련된 디자인과 14나노급 64비트 지원 모바일 프로세서 등 진일보한 하드웨어를 갖췄다.

사진제공 | 삼성전자

베일 벗은 ‘갤럭시S6’ 삼성의 효자상품 될까?

업계 처음 14나노급 64비트 AP…디자인도 호평
WSJ “삼성전자가 만든 가장 아름다운 휴대전화”

베일을 벗은 ‘갤럭시S6’가 삼성전자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

삼성전자는 1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컨벤션센터(CCIB)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열고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를 공개했다. 지난해 경쟁사 애플의 견제는 물론 후발주자인 중국 업체의 추격까지 받으며 고전한 삼성전자의 새 효자상품으로 자리 잡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또 이재웅 부회장 체제에서의 사실상 첫 전략 제품이란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디자인부터 하드웨어까지 업그레이드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는 그동안의 삼성 스마트폰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움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뒀다. 먼저 메탈 테두리와 앞뒷면 글래스라는 서로 상반된 성격의 두 소재를 자연스럽게 연결해 세련된 디자인을 완성했다. 하드웨어 성능도 진일보했다. 업계 최초 14나노급 64비트 지원 모바일 프로세서는 물론 최신 LPDDR4와 UFS 2.0 메모리를 적용해 끊김 없는 빠른 속도와 강력한 성능을 자랑한다. 후면 1600만, 전면 500만 고화소에 밝은 렌즈(조리개 값 F1.9)카메라를 단 것도 눈에 띈다.

디스플레이는 5.1인치 쿼드HD 슈퍼 아몰레드를 적용했다. 갤럭시S6 엣지의 경우 업계 최초 양측 곡면 디스플레이를 적용했다. 배터리도 달라졌다. 일체형 배터리를 적용하는 대신 소모전력을 낮추고 충전 기능을 강화했다. ‘갤럭시S5’ 대비 1.5배 빠른 유선 충전을 제공하고, 10분 충전으로 약4시간 사용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게 삼성측의 설명이다. 패드를 통한 무선충전 기술도 내장했다.

이 밖에도 모바일 보안 플랫폼 ‘녹스’와 모바일 페이먼트 ‘삼성페이’ 등 차별화된 솔루션을 적용했다. 32GB, 64GB, 128GB 등 3가지 용량의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는 4월10일 출시 예정이다.

●외신 호평 이어져

갤럭시S6는 공개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낳았다. 전작 갤럭시S5가 기대이하의 성적을 거두면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내놓은 삼성전자의 야심작이기 때문. 평가는 일단 긍정적이다. 제품이 공개되자 외신들은 일제히 호평을 쏟아냈다. 그동안 삼성전자가 내놓은 제품과는 확실히 차별화된 디자인과 향상된 성능 등 혁신을 이뤘다는 설명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의 경우 ‘삼성전자가 만든 휴대전화 중 가장 아름답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반면 업계 일각에선 일체형 배터리에 대한 호불호가 갈릴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시장이 전체적으로 중저가폰으로 이동하고 있어 가격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과거처럼 큰 파괴력을 보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대웅제약, ‘올로스타’ 미국 수출 계약 체결

대웅제약은 미국 오토텔릭(Autotelic)사와 복합 개량신약 ‘올로스타’에 대한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대웅제약이 자체 특허기술로 개발한 올로스타는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의약품이다. 이번 계약으로 오토텔릭사는 미국, 캐나다 등에 올로스타 공급 및 유통권을 확보하게 됐다. 대웅제약은 미국 발매 후 10년간 3000억원 규모의 올로스타를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트위터@simss23

“먹는 탈모치료제, 남성호르몬과 무관하다”

탈모치료제의 오해와 진실

유전적 소인·DHT 동시에 작용한 질환
초기 탈모, 안전성 검증된 약물로 치료
중기 이상은 모발이식·약물치료 병행

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 행사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금지약물 논란이다. 최근 한국수영의 간판 박태환(26)이 국제수영연맹에서 실시한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 양성판정을 받아 국민에게 충격을 줬다. 선수들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 고의로 금지약물을 투약하기도 하고, 복용한 의약품에 금지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바람에 의도치 않게 도핑에 걸리기도 한다. 박태환도 자신을 치료한 의사의 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탈모치료제도 도핑 이슈 때 자주 언급된다. 실제 브라질의 축구선수가 평소 복용하던 탈모치료제 때문에 도핑테스트 양성판정을 받아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경구용 남성형 탈모치료제는 스테로이드 복용여부를 확인하는 데 방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한때 금지약물로 지정되기도 했지만, 정확한 검사가 가능해지면서 현재는 제외되었다. 하지만 과거 사례로 인해 아직도 경구용 탈모치료제의 안전성을 의심하고 복용을 꺼리는 탈모 환자들이 많다. 맥스웰피부와 남기순 원장의 도움을 받아 탈모와 탈모치료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본다.

●남성호르몬이 탈모를 일으킨다?

“대머리는 남성호르몬 수치가 높다.” ‘대머리 남성은 정력이 좋다.’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탈모 관련 속설이다. 정말 탈모는 남성호르몬 수치가 높은 사람에게서 생길까? 정답은 ‘아니다’이다. 탈모는 유전적 소인과 DHT(다하이드테스토스테론)가 동시에 작용해 발현되는 질환이다. DHT는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특정 효소에 의해 변환된 물질로 모낭을 위축시키고 모발의 성장기를 단축시킨다. 하지만 DHT의 역할은 테스토스테론과 다르기 때문에 성인 남성의 성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탈모 치료제를 복용하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아진다는 속설 역시 사실이 아니다. 탈모



맥스웰피부와 남기순 원장(오른쪽)이 탈모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남 원장은 탈모에 대해 시중에 떠도는 속설에 현혹되지 말고 검증된 의약품으로 조기에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고 조언한다.

사진제공 | 맥스웰피부과

치료제는 탈모의 원인 물질인 DHT를 억제할 뿐 테스토스테론에 작용하는 약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맥스웰피부와 남기순 원장은 “실제 병원 현장에 있다 보면 잘못된 속설의 영향으로 탈모치료제의 안전성을 우려해 복용을 꺼리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며 “하지만 탈모치료제는 장기간의 임상연구를 통해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었으며, 미국식품의약국 및 국내 식약처 등이 이를 공인해 안심하고 복용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초기 탈모는 약물치료로 잡아야

탈모는 한 번 발현되면 의학적으로 치료하지 않는 이상 증상이 심화되는 진행성 질환이다. 따라서 가장 좋은 탈모 치료법은 ‘조기 발견과 적절한 의학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다. 다행히 초기 탈모는 먹고, 바르는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한 개선효과를 얻을 수 있다. 먹는 탈모치료제는 임상 연구를 통해 90% 이상의 탈모 억제 효과와 70% 이상의 발모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다만 치료효과가 최소 3개월이 지나야 나타나고, 복용 1년 시점에서 극대화되기 때문에 단기 효과가 없다고 복용을 중단해선 안 된다. 또 먹는 탈모 치료제와 함께 바르는 탈모 치료제를 아침·저녁으로 두피에 도포하면, 모근 세포에 세포성장 촉진 인자로 작용해 더욱 확실한 치료효과를 볼 수 있다.

●중기 이상 탈모, 모발이식·약물치료 병행해야

1년 이상 약물치료를 지속했음에도 효과가 없거나 이미 탈모가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모발이식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모발이식 수술은 탈모가 일어나지 않는 후두부 모발을 채취해 탈모 부위에 이식하는 수술이

다. 과거에는 흉터와 통증에 대한 부담과 비교적 긴 회복시간으로 인해 수술을 꺼리는 환자들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수술 기술의 발달로 이런 단점들이 개선됐다. 단, 한번의 이식 수술만으로 탈모치료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이식 부위 이외의 곳에서는 계속해서 탈모가 진행되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도 먹고 바르는 약물치료를 꾸준히 해야 한다.

맥스웰피부와 남기순 원장은 “탈모 치료는 환자 개인의 상태에 따라 약물치료만 할지 모발이식과 약물치료를 병행할지를 결정한다. 조금이라도 상태가 좋을 때 치료를 시작해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치료 예후가 좋으므로 탈모가 의심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문의를 찾아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재학 기자 ajapto@donga.com 트위터@ajapto

탈모 강박형에겐 공포 그 자체…“한 올만 빠져도 스트레스”

■탈모증 대처하는 3가지 유형

무관심형…“가족력 없으니 괜찮겠지”
전문가형…“새로운 치료법 도전은 필수”

탈모 인구 1000만 시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매년 탈모 인구가 급증하면서 탈모에 대처하는 자제도 각광각색이다.

▲탈모 무관심형 “가족력 없으니 관심 불필요”

먼저 탈모에 대한 관심이 전무인 경우다. 주로 가족 중 대머리가 없어 탈모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물론 탈모는 유전적인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질환이다. 일반적으로 부모 중 한 쪽에만 탈모가 있다면 유전 확률은 50%, 부모 모두에게 탈모가 있다면 확률은 90%로 높아진다. 그러나 가족력이 없다고 마냥 안심할 순 없다. 특히 요즘은 불규칙

한 식습관, 환경 호르몬, 스트레스 등 외부적인 요소가 작용하는 후천성 탈모가 증가하고 있다.

▲탈모 강박형 “머리카락 한 올만 빠져도 무섭다”

각종 미디어를 통해 탈모 관련정보들이 쏟아지고, 탈모가 젊은층과 여성에게까지 나타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탈모에 대한 관심을 넘어 공포, 불안감을 부추긴다. 이에 머리카락 한 올만 빠져

도 ‘혹시 탈모가 시작된 게 아닐까’ 하고 불안해하는 이들이 있다. 지나친 불안감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해 탈모를 유도할 수 있다.

▲탈모 전문가형 “새로운 치료법은 무조건 시도”

자칭 ‘탈모 전문가’들은 탈모예방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런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치료법이 나오면 무작정 시도해 본다. 하지만 자신의 두피에 맞지 않는 치료는 오히려 탈모를 가속화시키고 경제적 손실도 초래할 수 있다.

김재학 기자

도움말 | 이규호 모아름 모발이식센터 원장

트러블 없는 피부관리 노하우

통증 줄인 문신 레이저시술, 피코슈어레이저

문신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20~30대는 문신을 하나의 액세서리와 같은 개념으로 여겨 개성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문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비 의료인의 시술행위도 늘었다.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문신시술은 소비자들의 피부병을 불러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비의료인의 문신시술행위는 비위생적인 곳에서 시술되는 경우가 많다. 또 피부타입

에 대한 적절한 대안없이 문신시술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피부에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문적이지 못한 시술로 문신 또한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문신의 경우 개성 표현의 매개체로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한번 시술을 받고 나면 쉽게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과거에는 엔디야그레이저 방식의 문신제거시술을 많이 이용하곤 했다. 이는 문신입자를 자

갈크기로 부수 배출해 냈기 때문에 다소 시술기간이 길고 효과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에스피부과에서는 피코슈어레이저를 통해 시술시의 통증을 줄이고 빠른 레이저 시술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피코슈어레이저는 기존 레이저인 엔디야그레이저 장비에 비해 약 100배 정도 짧은 조사시간을 보이고 있어 문신제거가 더욱 효과적이다.

●효과적인 문신제거가 가능해진 피코슈어레이저 장비

피코슈어레이저는 1초를 10조로 나눈 단위인 ‘피코’라는 단위를 레이저에 접목시켜 빠르고 강력한 레이저 조사가 특징이다. 피코슈어레이저의 경우 개인의 차이가 있지만

이전까지 사용되던 큐스위치 엔디야그레이저를 이용한 시술 횟수에 비해 절반 정도의 시술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 게다가 엔디야그레이저에서는 효과를 볼 수 없었던 색소문신에도 반응을 하여 다양한 문신염료도 시술이 가능하다. 선택적인 조사가 가능해져 시술시의 통증을 줄일 뿐 아니라 시술 후 부작용의 위험도 줄었다.

문신제거에 있어 뛰어난 효과를 보이고 있는 피코슈어레이저는 피부과 진료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바로 기미, 색소, 주근깨 또는 주름 치료다. 특유의 강력한 레이저 피부조사로 문신제거와 피부병변 치료에 만족스러운 효능을 보인다. 문신제거에 대한 걱정이 있거나 피부병변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피코슈어레이저로 깨끗하게 씻어버릴 수 있기를 바란다.

에스피부과의원 전문의 홍성진 원장